

현시대 한국인의 효심에 관한 질적 탐구*

서 경 현[†] 이 지 수¹⁾ 이 보 람²⁾

본 연구는 현시대 한국 사회에서 성인 자녀들이 인식하고 실천하는 '효'의 개념과 그 심리적 경험을 질적 방법으로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과 배경을 가진 성인 남녀 10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시행하였으며, 총 370개의 의미 단위를 도출한 후 중복 및 분석 구조에 부합하지 않는 항목을 제외하고 심리학적 관점에서 유사한 내용을 묶어 87개의 개념, 23개의 범주, 6개의 상위 범주를 도출하였다. 주요 상위 범주는 '내리사랑 속에서 자란 치사랑', '당연한 인간의 도리', '삶의 안정과 안녕을 지지하는 효', '효에 대한 양가감정', '효를 실천하지 못한 데 대한 안타까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새로운 효 개념'이었다. 분석 결과, 현대 성인 자녀들은 전통적 효의 가치와 현대적 삶의 조건 사이에서 다양한 심리적 반응과 실천 전략을 나타내고 있으며, 효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강하지만 실천 방식은 더 유연하고 정서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효의 개념을 심리학적으로 구조화한 탐색적 시도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향후 양적 연구 및 효 개념의 심리 측정 도구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주요어 : 효, 성인 자녀, 질적 연구, 한국 사회, 정서적 반응

* 이 논문은 2024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중견연구자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4S1A5A2A01021068).

† 교신저자 : 서경현, 삼육대학교 상담심리학과, (139-742) 서울시 노원구 화랑로 815, Tel: 02-3399-1676

E-mail: khsuh@syu.ac.kr

1) 삼육대학교 상담심리학과

2) 삼육대학교 상담심리학과

 Copyright ©2025,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of Culture and Social Issues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베이비붐 세대가 노년기에 진입함에 따라 고령화는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김수정, 2019). 이에 따라 노년기 삶의 질을 유지하는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신성대, 2023). 이러한 배경 속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한국에서는 노인 복지를 위한 정부와 지역사회의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들이 진행됐다(강은나 외, 2014; 변미리, 2015). 그러나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경제적 지원을 넘어, 정서적 지지와 심리적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자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연로한 부모에 대한 지원의 근간에는 ‘효(孝, filial piety)’의 개념이 존재한다. 유교 전통이 뿌리내린 동양 문화권에서는 효를 ‘효도(孝道)’라 하여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로 여겨왔으며(King & Bond, 1985), 한국에서도 부모에 대한 효는 전통적으로 중요한 덕목으로 강조됐다(김평일, 2001). 노인 부양이 주로 사회복지 차원에서 국가의 책임으로 인식되는 서구 사회에서도, 노인과 자녀 간의 상호의존성은 여전히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부모에 대한 자녀의 물리적·정서적 지원의 중요성은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다(Boerner et al., 2022; Cohen et al., 2023).

한국은 경제적으로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지만, 노후를 대비하는 수준은 여전히 낮은 편이다. 저축이나 연금에 기반한 노년기 준비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미흡하며, 2023년 한 금융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52.5%가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를 전혀 시작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김신희, 2023). 이처럼 국가의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현실에서, 한국 노인들

은 앞으로 자녀의 지원에 더욱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자녀의 효심에 기반한 정서적·경제적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노인의 삶의 질 저하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현시대 한국 성인 자녀들의 효심이 어떻게 형성되고 실천되고 있는지를 탐색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과제로 제기된다.

한국인의 전통적 효 개념

전통적으로 유교 문화권에 속한 한국, 일본, 중국에서는 효가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의 의식과 생활에 깊이 뿌리내려 도덕성의 기준으로 작용해 왔다(성규탁, 1994). 정옥분 등(1996)은 유가 경전을 바탕으로 효를, 개인이 부모·타인·자연과 관계를 맺으며 우주의 섭리를 실현하는 원리로 보았다. 효는 생존해 있는 부모에 대한 효와 사망한 부모에 대한 효로 구분할 수 있다. 김태훈(2012)은 사망한 부모에 대한 효는 부모나 조상에 대한 그리움과 존경이 기억의 재생이나 제사와 같은 행위를 통해 구현될 수 있다고 하였고, 생존해 있는 부모에 대한 효는 물질적 지원과 신체적 편안함을 도모하는 효와, 부모가 심리적 안정과 기쁨을 느끼도록 하는 정서적 효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전통적 효 실천의 요소를 김황기(2016)는 ‘감사하는 효’, ‘뜻을 헤아리는 효’, ‘섬기는 효’의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그는 감사하는 효의 실천 내용으로 생육(生育), 보은(報恩), 신체보전(身體保全), 입신양명(立身揚名)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건강한 신체와 마음을 유지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뜻을 헤아리는 효는 양지(養志), 시봉(侍奉)

으로 구성되며, 부모의 뜻을 이해하고 가르침을 마음에 새겨 물질적·정신적 어려움 없이 모시는 것을 뜻한다. 섬기는 효는 순종(順從), 공경(恭敬), 간언(諫言), 후사(後嗣), 사후(死後)를 포함하며, 부모의 뜻을 존중하고 공경하는 동시에 부모가 실수하거나 부당한 행동을 할 때는 화내지 않고 부드럽게 바른길을 제시하는 자세를 포함한다. 또한 자손을 이어 가족의 연속성을 도모하고, 부모 사후에도 상(喪)과 제례(祭禮)를 정성껏 챙기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김황기, 2016).

정민과 김동진(2019)은 효의 의미가 문화나 시대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며, 따라서 효의 개념을 서로 다른 문화나 시대에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들은 현대 사회에서의 효는 부모에 대한 절대적 순종이나 일방적 섬김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 간의 상호호혜적인 관계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현대의 효는 규범이라기보다는 가치(value)에 초점을 맞추며, 자율적인 실천이 강조되고 물리적 지지보다는 정서적 지지가 더 중요한 요소로 드러난다(김평일, 2001).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효의 전통적인 측면만을 강조하게 되면, 효 개념이 권위적이고 비민주적인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어 자녀들이 불평등을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은기수, 2000). 시대는 변화했어도 효 개념이나 초등교육에서 가르치는 효의 의미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하여도 효의 실천 방식에 있어서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이흥신, 2012). 따라서 전통적 효 개념을 그대로 현대인의 효심이나 효행에 적용하는 데에는 본질적인 한계가 존재한다(김지영, 최상진, 2003). 더 나아가 그런 전통적인 효 개념을 기반으로 개발된 척도로 현대인의 효심이나 효행을 측

정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Ho, 1996).

이런 문제 인식이 국내에 없었던 것은 아니고 다양한 연구들이 시도되었다. 예를 들어, 류정리(2013)는 전통적 효 실천 요소를 바탕으로 청년층을 대상으로 효 척도를 개발하면서 6요인의 구조된 효 개념을 제안하였지만, 타당화 과정이 체계적이지 않아 구조적 해석에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이 연구는 한국에서 이루어졌지만, 연구 대상이 중국인 대학생이었다. 그 이전에 성규탁(1994)은 효 실천의 동기를 정서지향, 가족지향, 행동지향 등으로 분류하여 요인분석을 시도하였으나 문항 구성의 신뢰성 및 재현 가능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다. 최근에 정민과 김동진(2019)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효 개념을 가족-소통지향성과 독립-성장지향성으로 구성된 새로운 2요인 구조로 제안하였고, 김보현(2022)은 청소년 대상 효의식 척도를 개발하여 효심, 효지, 효행이라는 세 가지 요인을 도출하였다. 하지만 이들 연구는 청소년이나 대학생과 같은 특정 집단에 한정되어 있어 전체 성인 집단의 효심을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데에는 여전히 제약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의 효심은 문화심리학적 관점에서 일정 부분 추론이 가능하다. 토착심리학적 차원에서 한국인의 부모-자녀 관계를 고려할 때, 효는 단순한 윤리적 규범이 아닌 정서적 유대와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되는 관계 중심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김의철 외, 2005; 박영신 외, 2018). 그런 차원에서 김의철과 박영신(2004)은 한국인의 효심이 부모의 헌신적 양육에 대한 자녀의 정서적 반응이며, 문화적 맥락 안에서 발전한 상호적 구조임을 강조하였다. 한국적 부모-자녀 관계는 유교 문화에 기반한 가족주의와 효 개념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데, 유교적 가족주의는 부모의 사랑(慈)을 바탕으로 자녀가 효(孝)를 실천하는 관계 구조를 형성해 왔다(류정현, 2007). 문화심리학적 차원에서 최상진(1994, 2000)은 한국 사회에서는 서구의 개인주의적 인간관계와는 달리 자녀를 독립된 존재로 보기보다 부모와 자녀를 동일체로 인식하며 부모의 고통을 자녀가 마치 자기 일처럼 받아들이는 관계 속에서 효가 심리적으로 내면화된다고 설명하였다. 그런 차원에서 『심청전』은 부모에 대한 헌신과 희생을 통해 한국 전통사회에서 효가 도덕적 의무이자 자녀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핵심 가치로 자리 잡았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해외에서의 효 개념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효는 가정과 사회의 안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가치이다. 먼저, 자녀의 효행은 부모의 웰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여러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Cheng & Chan, 2006; Zheng & Li, 2022). 한편, 효의 실천이 그것을 행하는 자녀의 삶이나 웰빙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연구 결과가 존재하는 반면(Chen et al., 2016; Cheung et al., 1994), 일부 연구에서는 효가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이 제기되기도 하였다(Ho, 1996). 특히 권위주의적 성향의 효는 자녀의 정신건강이나 삶의 만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실증연구를 통해 입증되었다(Leung et al., 2010).

이러한 효의 양면적 특성을 반영하여 Yeh와 Bedford(2003)는 이중효 모형(Dual Filial Piety Model)을 제안하였다. 이 모형은 효를 권위주의적 효(authoritarian filial piety)와 호혜적 효

(reciprocal filial piety)의 두 요인으로 구분한다. 이중효 모형에 따르면, 호혜적 효는 자녀가 부모에게 사랑, 감사, 돌봄, 정서적 친밀감 등을 자발적으로 표현하는 데 중점을 두지만, 권위주의적 효는 부모에 대한 존경과 복종을 강조하는 특성을 보인다. 실제 연구에서도 호혜적 효는 자녀의 삶의 만족도와 정적인 상관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Sun et al., 2019).

해외에서 효에 관한 심리학적 연구는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효심을 측정할 수 있는 타당화된 도구는 Ho와 Lee(1974)에 의해 처음 개발되었다. 이들은 당시의 효를 권위주의적 기반 위에 놓인 개념으로 보았으며, 자녀가 부모에게 복종하고, 부모의 은혜와 희생에 보답하며, 나아가 가문의 명예를 지키고 가계의 형통을 계승하는 것으로 효를 개념화하고 이를 측정하였다. 이후에는 효의 정서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으며(Yang et al., 1998), Yeh와 Bedford(2003)는 이중효 모형(Dual Filial Piety Model)을 제안하면서, 그중 호혜적 효에 정서적 요인을 통합하여 효 개념을 보다 폭넓게 확장하였다.

이중효 모형에 기반한 이중효 척도(Dual Filial Piety Scale: DFPS)는 다양한 국가, 특히 아시아 국가들에서 타당화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현재까지 널리 활용되고 있다(Fu et al., 2020; Khalaila, 2010; Khanh Ha et al., 2020; Lim et al., 2022). 그러나 현대를 살아가는 젊은 세대는 더 이상 권위주의적 효의식을 따르지 않는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백희연, 2021). 이에 따라 오늘날의 효 개념을 측정하는 데 있어 권위주의적 효가 포함된 DFPS는 한계를 지닌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Chow, 2006). 이러

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Lum 등(2016)은 현대의 효를 평등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이들은 부모에 대한 효를 세대 간의 교환—즉, 부모의 돌봄 요구와 자녀의 돌봄 자원 및 능력—의 균형으로 이해하고, 이에 초점을 맞춘 현대효 척도(Contemporary Filial Piety Scale: CFPS)를 개발하였다. 이 척도는 권위적 순종보다는 현실적 돌봄의 자발성과 상호성을 반영하고자 하는 시도로, 21세기 현대인의 효 개념을 보다 정확히 측정하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현시대에도 권위주의적 효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는 우리 사회에 여전히 효의 규범성이 존재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Shi와 Wang(2019)은 현대 중국 사회에서도 효의 규범이 여전히 작용하고 있으며, 효의 정서적 측면이 강하고, 실천에 있어 자율성과 합리성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세 가지 특성을 기반으로, 중국 직장인의 효 개념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였다. 이들은 성인이 된 자녀가 단지 자녀 역할에만 국한되지 않고, 남편, 아내, 부모, 직장 동료 등 다양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이러한 다양한 관계 속에서의 기대를 동시에 충족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로 인해 효의 의무를 수행하는 과정은 다른 역할의 수행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예를 들어, 오늘날의 직장인에게 해외 파견 근무는 승진이나 자녀 교육에 큰 도움이 되는 기회일 수 있으나, 이는 부모와의 물리적 거리 유지를 요구하는 전통적 효 개념과 충돌할 수 있다. 그런데도 이러한 기회를 전통적 효 개념을 지키기 위해 포기하는 것은 오히려 부모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비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Wang과 Zheng(2015)은 삼차원효 모형(Three-Dimensional Filial Piety Model)을 제안하였다. 이 모형은 긍정적 정동, 가족 역할 규준, 이익의 균형이라는 세 가지 차원으로 구성된다. 긍정적 정동 차원에서는 효가 진정한 것인지 거짓된 것인지, 즉 부모에 대한 자녀의 감정적 진정성을 중심으로 판단된다. 가족 역할 규준 차원에서는 자율성과 타율성의 스펙트럼에서 자녀가 효를 실천하는 동기가 외적 강요에 의한 것인지, 혹은 자발적 선택인지에 초점을 둔다. 마지막으로 이익의 균형 차원은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고 순종하는 과정에서 본인이나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지를 기준으로, 효의 실천이 합리적인지 비합리적인지를 판단한다. 즉, 합리적 효는 자녀가 자기 능력 안에서 조화를 이루며 효를 실천하는 것이고, 비합리적 효는 맹목적 헌신으로 인해 자녀 자기 삶이나 주변인의 권익을 해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Shi와 Wang(2019)는 삼차원효 모형을 이중효 모형의 확장된 형태로 보았다. 이는 이중효 모형에서 정서적 차원을 보다 구체화하였으며, 권위주의적 효를 가족 역할 규범으로 대체했기 때문이다. 삼차원효 모형에서의 가장 주목할 만한 발전은 ‘이익의 균형’ 차원인데, 이는 자녀들이 자신의 자원과 능력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효를 실천해야 함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기존 모형보다 진일보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 차원에서는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의 개념이 핵심적으로 다뤄지며,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데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포함해 다양한 사회적 역할 간 균형을 고려해야 함을 제시한다(Shi & Wang, 2019). 즉, 부모를 돌보는 방식은 자녀의 자원과 능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부양의 형태와 책

임의 범위 역시 조정될 수 있다.

특히 부모를 요양시설에 입소시켜 돌보는 이른바 ‘하청 효도(subcontracting filial piety)’에 대한 인식은 세대 간에 차이를 보일 수 있다(Luo & Zhan, 2012). 한국 사회에서도 부모 부양의 전통적 실천 방식이 변화하고 있으며, 부모의 요양시설 입소를 둘러싼 형제 간 의견 차이는 갈등의 요소가 되기도 한다(김대영, 2007). 한편, 최근 중국에서는 노인의 효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는 도구가 개발되었는데, 이 척도에서는 부모에 대한 돌봄(caring for parents), 가족의 전체성 추구(familial entirety), 가족에 대한 염원(familial aspiration)이라는 세 가지 요인이 도출되었다(Fu et al., 2020). 연구자들은 이러한 결과를 통해 현시대 중국 노인들의 효에 대한 기대가 이전과 달라졌음을 시사한다고 결론지었다.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오늘날 한국 사회는 급속한 인구 고령화, 가족 구조의 해체, 개인주의적 가치관 확산 등의 흐름 속에서 전통적인 가족 윤리와 실천 방식에 대한 재해석이 요구되는 시대적 전환점을 맞고 있다(김수정, 2019). 특히 ‘효’는 오랫동안 한국 문화와 가족윤리의 핵심 가치로 인식됐으나(성규탁, 1994), 현실적인 여건과 세대 간 인식 차이로 인해 그 개념과 실천 방식이 과거와는 분명히 다른 양상을 보인다. 과거의 효가 일방적 복종이나 권위주의적 순응을 전제로 했다면, 오늘날의 효는 자율성과 정서적 교감, 관계 속 상호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효 실천에 대한 판단 역시 개인의 가치 체계나 생활 조건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백희연, 2021; 은기수, 2000;

Luo & Zhan, 2012).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의 효 연구는 대체로 특정한 윤리 규범의 지속 가능성이나 사회복지 차원의 돌봄 구조에 초점을 맞춰 왔으며(김황기, 2016; Cheng & Chan, 2006), 개인이 효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심리적 동기와 갈등 속에서 실천하고 있는지를 조망한 연구는 극히 드물다. 특히 한국에서는 효에 대한 심리학적 접근이 체계적으로 시도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은 문화적 변화에 따른 효 개념의 내면적 재구성을 포착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효에 대한 의미 구성이 개인의 삶에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량적 척도 개발에 앞서 질적 탐색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높다. 이는 효가 단순히 외형적인 실천만이 아니라 정체성, 관계성, 삶의 방향성 등과 긴밀하게 연결된 심리적·사회문화적 개념이라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현대 한국 사회에서 성인 자녀들이 효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어떤 방식으로 실천하고 있는지를 질적으로 탐색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참여자들의 생생한 서사와 경험을 바탕으로 효 개념의 정서적, 인지적, 행동적 구성 요소를 도출하고, 이러한 결과를 통해 효의 현대적 의미를 재구성하며, 나아가 현대 한국인의 효심과 효행을 측정할 수 있는 심리학적 척도 개발과 향후 양적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에서 현시대 한국인이라는 표현은 모집단 전체의 일반화를 전제하기보다는 변화하는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연령과 배경의 한국 성인들이 경험하는 효심의 양상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려는 질적 탐구의 범위를 의미하는 것이다.

방 법

참여자

본 연구는 현상학적 연구의 참여자 선정 원칙인 적절성과 충분성의 원리를 준수하였다.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해 가장 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것 같은 참여자를 선정하였으며, 자료가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고 생각될 때까지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였다(유기웅 외, 2018). 자료수집 과정에서도 적절성을 유지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았다.

효심의 구체성과 현실성을 위해 본 연구는 적어도 한 명의 부모가 생존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는데, 참여자는 20대부터 60대까지 연령대별로 남녀 한 명씩 배정하는 가운데 60대의 경우 부모가 생존한 사례가 드물어 참여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참여자의 성별과 연령 분포는 최대 변이 표집(maximum variation sampling)의 전략에 따라 다양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이고, 효 개념이 세

대 및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의미화되는지를 탐색하고자 하는 의도로 설계한 것이다.

참여자의 신뢰와 적극적인 참여를 확보하기 위해 지인을 통한 모집 방식과 눈덩이 표집 방법을 활용하였다. 개인 네트워크를 통해 연구의 목적과 참여 조건을 상세히 설명하고, 이를 명시한 포스터를 작성하여 지인을 통해 전달하였다. 모집 과정에서는 대상자와 연구자의 관계가 연구 자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자발적인 참여를 강조하였다. 모든 참여자에게 연구 윤리와 비밀보장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청취한 후 서면 동의서를 받았다.

최종적으로 20명의 지원자 중 기준에 부합하는 10명을 연구 대상인 참여자로 선정하였으며, 이들은 연구의 모든 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였다. 참여자의 특성은 표 1에 요약하였다.

참여자 A는 1996년생인 20대 남성으로, 1남 1녀 중 장남이다. 현재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으며, 최종 학력은 대학교 졸업이다. 그는 사춘기와 20대 초반의 부모와의 갈등이 있었

표 1. 연구 참여자의 특성

참여자	연령	성별	최종학력	직업	혼인여부	자녀
A	20대	남성	대졸	프리랜서	미혼	없음
B	20대	여성	대졸	취업준비	미혼	없음
C	30대	남성	박사과정	직장인	기혼	1남
D	30대	여성	박사과정	상담사	기혼	2남
E	40대	남성	대졸	건축업	기혼	1남
F	40대	여성	박사	교수	미혼	없음
G	50대	남성	석사	중견회사 간부	기혼	3녀
H	50대	여성	대졸	농업	기혼	없음
I	60대	남성	중졸	미화	기혼	1남 1녀
J	60대	여성	고졸	주부	기혼 (사별)	1남

다. 참여자 B는 20대 여성으로, 현재 독립하여 생활하고 있는 취업준비생이다. 그녀는 자격증 취득과 대학 진학에 노력해 왔으며, 어린 시절에는 부모에게 받은 것에 대해 충분히 감사하지 못했던 자신을 성찰하고 있다.

참여자 C는 30대 직장인 남성으로, 기혼이며 1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그는 아버지의 별세를 계기로 부모의 소중함을 깊이 깨닫게 되었다고 한다. 참여자 D는 30대 여성으로 심리상담사이며, 두 아들의 어머니이다.

참여자 E는 40대 남성으로, 배우자와 자녀 1명과 함께 살고 있다. 그는 현재 아버지와 함께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다. 참여자 F는 40대 후반의 전문직 미혼 여성이다.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으로 아버지와 함께 지냈고, 성인이 되어 어머니와 재회하여 외국에서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그러나 오랜만에 함께 살게 된 어머니의 간섭을 부담스럽게 느끼며 잦은 갈등을 겪었고, 결국 일정 기간 떨어져 지내기도 했다. 그녀는 성인이 되어 만난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서로에게 적응할 시간이 필요했음을 회고하고 있다.

참여자 G는 50대 초반의 남성으로 중견기업의 간부이며, 배우자와 세 딸을 함께 양육하고 있다. 부모는 지방에 거주 중이며, 현재도 어머니가 아버지의 삼시세끼를 챙기고 있다. 참여자 H는 50대 여성으로, 40대 후반에 결혼하여 현재는 배우자와 함께 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1남 2녀 중 막내로 자란 그녀는 자상한 아버지의 돌봄을 기억하며, 중학교 시절 어머니의 교통사고 이후 1년간 병간호와 학업을 병행하며 어머니의 역할을 대신했다. 이후 어머니의 회복 전까지 기저귀를 빨고 수발을 들며 밀착된 관계를 형성했고, 대학생이 되던 무렵 어머니의 건강이 회복되면서 돌봄

의 부담이 덜어졌다.

참여자 I는 60대 초반의 남성으로, 기혼이며 1남 1녀의 자녀를 두고 있다. 그는 미화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중졸 학력으로 8남매 중 다섯째이자 아들 중 둘째이다. 아버지는 그가 9살 때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현재 94세로 생존해 계신다. 그는 어머니가 홀로 8남매를 키우는 과정에서 보여준 강인함과 억척스러움을 깊이 느끼며 성장해 왔다. 참여자 J는 60대 여성으로, 남편과 사별한 뒤 현재 30대 후반의 미혼 아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고등학교 졸업이 최종 학력이며, 주부로서 집안일을 돌보는 한편 다양한 취미활동을 즐기며 일상을 보내고 있다.

자료수집 절차

질적 자료의 수집은 기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받은 후 윤리적으로 진행되었다(승인번호: 2024-08-004-001). 최종적으로 참가의사를 밝힌 참여자 10명에게 연구의 목적과 내용, 진행방식에 관해 설명하였고, 개인정보 보호가 명기된 동의서를 읽어 주면서 동의를 얻었다. 그 이후 인터뷰를 하면서 참여자의 동의를 얻은 후 녹음하였고, 인구통계학적 정보를 얻기 위한 간단한 구두 설문을 하였다.

자료수집을 위해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완성한 후 2024년 10월 3일부터 2024년 11월 17일까지 참여자 10명에게 인터뷰를 시행하였다. 참여자들이 편안한 상태에서 연구 목적에 부합하게 인터뷰할 수 있도록 그들이 원하는 공간과 시간을 자발적으로 선택하게 하였다. 참여자들이 외부의 방해받지 않는 독립된 공간을 선호하여 개인 상담실을 이용하여 6명을, 그리고 공간이 분리된 스터디카페에서 4명을

인터뷰하였다. 인터뷰가 진행된 시간은 60~90 분 정도였으며, 사전에 반구조화된 설문을 발송하고 참여자들 응답에 따라 세부적 질문이 이루어졌다. 인터뷰 종료 후 자료를 요약하는 과정에서 보충이 필요한 부분은 전화나 메일을 활용하여 추가자료를 수집하였다.

현상학적 연구에서는 자료의 수집과 분석을 동시에 진행하기도 하는데, 참여자의 녹음된 인터뷰 내용을 필사한 뒤 반복해 분석하는 절차를 거친다(김완일 외, 2018). 인터뷰하며 참여자들의 생생한 경험을 청취한 후 곧바로 축어록에 풀어 적어서 자료에 드러난 정보를 잘 보존하려고 노력하였다.

본 연구는 Giorgi(2009)가 제안한 현상학적 연구 방법에 기초하여 수행되었다. Giorgi의 방법은 개인이 경험한 현상에 대한 의미를 '사태 그 자체로(as it is)' 기술하고, 그 경험의 본질적 구조를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참여자들이 체험한 '효'에 대한 인식과 심리를 연구자의 이론적 해석 없이 그들의 주관적 경험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한 심층 면담을 하였다. 구체적으로 효에 대한 인식, 효행의 실천 방식, 효에 내포된 심리적 감정, 세대 간 인식 차이에 관해 질문하였고, 이런 질문들을 통해 참여자들이 실제 생활에서 경험한 효의 다양한 양상과 그 심리적 맥락을 수집하였다.

질적 연구에서 연구자는 자료 수집과 분석의 핵심 도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연구자의 준비도는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Merriam, 1998). 이에 본 연구의 연구자는 관련 학술 자료를 탐독하고, 유사 연구 경험을 통해 자료 수집 및 분석 역량을 키웠으며, 선입견을 점검하고 참여자의 경험을 공감적으

로 이해하기 위한 태도를 갖추었다. 또한 연구의 객관성을 유지하고 참여자의 이야기를 왜곡 없이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질적 자료 분석 및 해석 방법

현시대 한국인들의 효 개념과 실천 방식에 대한 인식을 탐구하기 위해 본 연구는 Giorgi(2009)가 제안한 현상학적 분석 절차를 기반으로 이남인(2005)이 재정리한 다섯 단계의 구체적인 분석 과정을 따라 자료를 분석하였다. Giorgi의 접근법은 참여자의 주관적 경험에 내재된 본질적 의미를 기술하고 그 구조를 도출함으로써 보편적 심리적 현상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첫 번째 분석 단계는 '전체 읽기'의 과정으로 수집한 자료를 총체적으로 인식하여 전체 의미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둔다(이남인, 2005). 참여자를 심층 면담한 후 녹음된 내용을 신속히 전사하고, 여러 차례 반복해서 읽으며 대략적인 흐름과 주제의 맥을 파악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구 주제인 '현시대 한국인의 효심'에 대해 연구자가 가지고 있는 선 이해와 가정들을 '괄호치기'하여, 전제 없이 참여자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이 과정에서는 외부 질적 연구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 분석의 편향을 최소화하였다.

현장에서 수집된 자료는 연구자가 현장 메모와 참고 노트를 활용하여 귀납적이며 구조화되지 않은 방식으로 분석되었고, 이 과정에서 질적 코딩의 기초가 되는 초기 개념과 의미 단위가 도출되었다. 분석에 활용된 예비 메모 중 일부는 그림 1에 제시하였다.

두 번째 분석 단계에서는 참여자들이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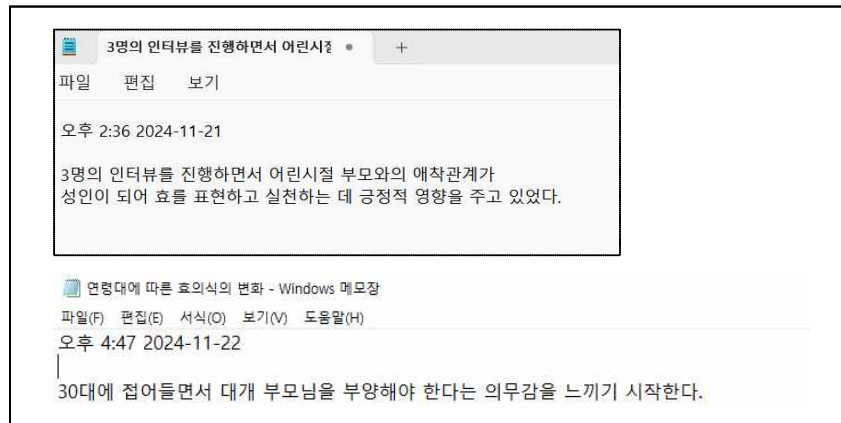


그림 1. 연구자 메모의 예

한 경험으로부터 ‘의미 단위’를 도출하는 과정으로, 현시대 한국인의 효 경험에 초점을 맞추어 전사된 자료를 문맥에 따라 의미 단위로 분절하였다. 이는 Giorgi의 분석 절차 중 ‘의미 단위 설정’에 해당하며, 단순히 문장이나 문단의 기계적 분할이 아니라 참여자의 경험이 변화하거나 새로운 의미가 드러나는 전환 지점에서 구획을 설정하는 것이다.

수집한 자료는 전체적으로 반복해 읽은 후 참여자의 진술 속에 내포된 정서 반응, 인식 구조, 실천 양상 등 경험의 변별 지점들을 기준으로 세심하게 의미 단위를 구분하였다. 이때 의미 단위는 객관적 기준이 아닌 연구자의 해석과 참여자의 표현을 모두 고려해 구성되었으며 의미의 중요도를 판단하기보다 전체적 흐름에서 모든 단위를 목록화하고자 하는 열린 태도로 분석에 임하였다.

의미 단위는 참여자의 진술을 있는 그대로 요약하거나 정서적 함의와 맥락을 고려하여 간명하게 재구성하되, 원자료의 본래 의미를 훼손하지 않도록 유의하였다. 이 분석을 위해 질적 연구 코딩 도구인 Taguette를 활용하여 참여자 10명의 면담 자료로부터 총 879개의

의미 단위를 도출하였다(그림 2 참고).

Taguette를 활용하여 의미 단위를 구분한 후, 세 번째 단계에서는 각 의미 단위가 전달하는 심리적 경험의 본질에 주목하여 참여자가 진술한 경험을 나타내는 핵심 주제를 파악하였다. 이는 Giorgi 분석 절차 중 ‘심리학적 의미로의 변환’ 단계에 해당하며, 참여자의 직접적 표현을 연구자의 심리학 용어로 전환하는 작업이었다. 이 과정에서 단순 요약이 아니라, 참여자의 진술을 심리적으로 본질화하고, 내포된 정서·의미 구조를 반영하여 중심 의미를 해석적 차원으로 재구성하였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도출된 중심 의미들을 바탕으로 참여자 개인의 경험을 해당 맥락 안에서 ‘상황 구조적 기술’하였다. 즉, 각 참여자가 보고한 효 인식과 실천 경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서술하였다.

다섯 번째 단계에서는 참여자 전원의 상황 구조를 통합하여 전체 참여자들에게서 공통으로 드러난 효 개념의 본질을 ‘일반 구조적 기술’로 정리하였다. 이 기술은 단지 빈도분석이 아니라 참여자들의 생생한 경험으로부터 추출된 본질적 구조를 도출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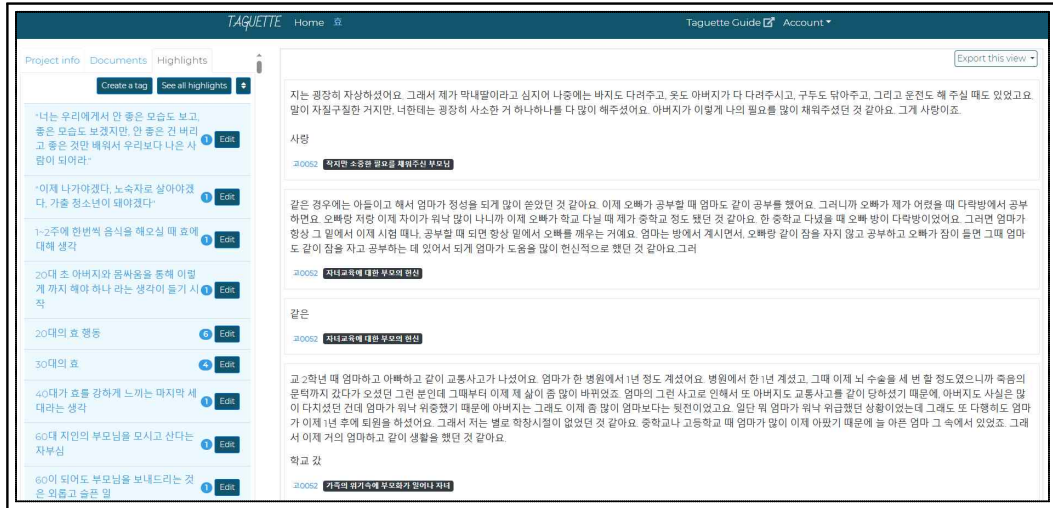


그림 2. Taguette 분석표

한편, Guba와 Lincoln(2005)는 질적 연구가 신빙성(credibility), 전이 가능성(transferability), 신뢰성(dependability), 확증 가능성(confirmability)을 확보해야 한다고 보았다.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기준을 고려하여 자료를 해석하고 분석의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의 논점을 참고하여 문화심리학적 관점에서 해석된 효 개념의 구조를 검토하였고, 해석 과정에서 연구자의 선입견을 배제하기 위해 삼각검증법(triangulation)을 도입하였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타 연구자 및 질적 연구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분석 내용을 재검토하였고(Merriam, 1998), 주요 범주의 적절성과 개념 구조에 대한 이론적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결 과

참여자들의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370

개의 의미 단위(코드)가 도출되었다. 이 중 중복되거나 분석 구조에 부합하지 않는 항목을 제외한 뒤, 심리학적 관점에서 유사한 의미를 통합하여 총 87개의 개념으로 요약하였다. 이후 이 87개의 개념을 공통된 경험에 따라 분류하여 23개의 범주로 정리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이들 범주를 통합하여 6개의 상위 범주를 도출하였다.

총 6개의 상위 범주, 23개의 범주, 87개의 개념으로 코딩을 완료하였으며, 요약된 내용은 표 2에 제시하였다. 도출된 상위 범주는 ‘내리사랑 속에서 자란 치사랑’, ‘당연한 인간의 도리’, ‘삶의 안정과 안녕을 지지하는 효’, ‘효에 대한 양가감정’, ‘효를 실천하지 못하는데 대한 안타까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새로운 효 개념’의 여섯 가지이다.

내리사랑 속에 자란 치사랑

‘내리사랑 속에 자란 치사랑’은 사랑하는

표 2. 참여자들의 진술 내용에 대한 구조적 기술

상위 범주	범주	개념(의미 단위)
내리사랑 속에 자란 치사랑	사랑하는 마음	• 부모와 끈끈하고 강한 유대감이 형성된 밀착된 관계 • 자주 보고 싶고 그리워하는 마음 • 부모의 사랑에 대한 감화 • 사랑하는 부모의 존재 자체로부터 얻는 위로감
	헌신에 대한 감사	• 출산 후 부모에 대한 감사의 마음 • 부모로 인한 자존감의 향상 • 헌신적인 존재에 대한 감사 • 부모에게 받은 것이 많아 느끼는 효행의 부족
	삶의 근원적인 힘	• 힘든 상황을 이겨내게 하는 근원적인 힘 • 어머니에 대한 의존 경험 • 어머니가 가족을 모이게 하는 구심점
	효행에서 비롯되는 내적 만족	• 부모에게 효도함으로써 생기는 자긍심 • 효 실천을 통해 얻게 되는 행복감 • 효를 통한 가족 화목과 분위기 향상 • 베풀을 통해 얻게 되는 즐거움
당연한 인간의 도리	효에 대한 당위 인식	• 자식으로서나 인간으로 해야 할 도리 • 효행을 당연한 일로 여기는 인식 • 항시 부모님 생각 • 전통적 사회의 가르침
	부모 은혜에 대한 보은	• 부모 덕분에 태어나고 자란 데 대한 감사의 마음 • 부모의 양육에 대한 보은 • 노년기 부모에 대한 애절한 마음
	노부모에 대한 연민	• 나이 든 부모에 대한 측은지심 • 부모를 편히 모셔야 한다는 숙제 의식 • 노부모에 대한 효행의 필요성에 대한 성찰 • 치매 어머니에 대한 연민과 안타까움
	돌보는 자의 책임감	• 부모에 대한 보호자적 책임감 • 효행에 대한 도리로서의 책임감 • 부모의 보호자가 되었다는 역할 인식 • 부모 봉양에 대한 윤리적 책임감
삶의 안정과 안녕을 지지하는 효	상호 안정 지향 효행	• 부모의 안녕을 위한 효행 • 부모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하는 배려 • 부모의 순조로운 생활을 위한 일상 지원

표 2. 참여자들의 진술 내용에 대한 구조적 기술

(계속 1)

상위 범주	범주	개념(의미 단위)
삶의 안정과 안녕을 지지하는 효	정성 어린 경제적 돌봄	• 부모로부터의 경제적 자립 • 부모의 노후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 지원 • 수명연장에 따른 경제적 지원 필요성 인식 • 기념일 챙기기를 통한 관심 표현
	일상 속 소통과 배려	• 전화 및 방문을 통한 일상 대화의 실천 • 따뜻한 언어 표현과 신체접촉을 통한 관계 증진 • 여가를 공유하려는 노력 • 부모의 의견에 대한 경청과 수용
	식사를 통한 정서적 효행 실천	• 식사를 통한 가족 유대 강화 • 식사 대접에 의한 부모의 만족감에 대한 인식 • 노부모의 식사 챙김에 대한 열정 • 먹을 것을 자주 보내는 음식 돌봄의 실천
효에 대한 양가감정	돌봄의 현실적 제약	• 부모 돌봄으로 인한 신체적 부담 • 부모 부양으로 인한 부부 갈등 • 일상생활 및 활동의 제약 • 시설에 부모를 모시면서 느끼는 자유
	가족 내 역할 충돌	• 부모 돌봄으로 생긴 부족한 아내 역할에 대한 아쉬움 • 부모와의 동거로 인한 결혼생활 문제 • 자녀 양육으로 인한 부모 지원 부족에 대한 안타까움
	경제적 부담과 정서적 갈등	• 경제적 지원에 대한 망설임과 죄책감 • 경제적 부담감에 따른 효 실천 곤란 • 부모 은퇴 후 생활에 대한 재정적 걱정
	일상 구조 속 실천의 제약	• 바쁜 일상에서 효행은 뒷순위 • 심적 여유 부족으로 인한 효 실천의 한계 • 효를 위한 시간과 에너지 소비에 대한 부담감
효를 실천하지 못한 데 대한 안타까움	부모 감정에 남긴 상흔에 대한 인식	• 부모를 부끄럽게 여긴 태도에 대한 반성 • 부모를 귀찮아했던 태도에 대한 후회 • 갈등 상황에서 부모에 대한 배려 부족에 대한 자각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자책감	• 부모에 대한 물리적 폭력에 대한 후회 • 아버지와의 논쟁에 대한 후회와 죄책감 • 부모 뜻에 순응하지 못한 점에 대한 후회 • 부모에게 무례했던 것에 대한 자책

표 2. 참여자들의 진술 내용에 대한 구조적 기술

(계속 2)

상위 범주	범주	개념(의미 단위)
효를 실천하지 못한 데 대한 안타까움	시간성과 유한함에 대한 자각	• 부모와 함께 경험하는 노화에 의한 효 실천 곤란 • 부모 직접 돌봄에 대한 의무감과 중년의 피로감 • 잘해드리지 못한 아버지의 부재에 대한 상실감과 죄책감 • 부모와 보내는 시간의 유한함의 인식
	돌봄 방식의 현실화	• 자녀 순서와 관계없는 돌봄의 재구성 • 조부모를 끝까지 모신 어머니 본받기 • 부모와 가까운 곳에 살면서 효 실천 • 부모를 시설에 모신 후 심리적·물리적 지원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새로운 방식의 효	현대적 효행의 실천 양상	• 부모는 모셔야 하지만 자녀들에게는 잘 살아주기만 바람 • 단란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 효의 실천 • 전화와 다정한 말투를 통한 정서적 돌봄 실천 • 음식과 용돈을 챙기는 것이 실질적 효의 실천
	부모와 자녀 간 기대에 근거한 효행	• 잦은 연락과 챙김에 대한 기대 충족 • 상냥한 말투와 안부에 대한 기대 충족 • 부모에게 감정을 표현하지 못한 데 따른 아쉬움 • 속마음을 보일 수 있는 편한 관계에 대한 기대 충족 • 자녀 가정과 적절한 거리 유지에 대한 필요 인식
	전통 및 어른 존중 태도	• 윗세대에 대한 긍정적 존중 필요 • 어른 공경 문화가 사라져가는 것에 대한 아쉬움 • 어른을 배려하는 것의 가치 회복 필요 • 조부모에 감사하는 자녀 교육 필요

마음, 헌신에 대한 감사, 삶의 근원적인 힘, 효행에서 비롯된 내적 만족과 같은 범주들을 포함하고 있다.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에는 부모와 끈끈하고 강한 유대감이 형성된 밀착된 관계, 자주 보고 싶고 그리워하는 마음, 부모의 사랑에 대한 감화, 부모의 존재 자체로부터 얻는 위로감과 같은 의미 단위가 포함되었다.

참여자들은 부모에 대한 애정과 유대감을 드러내고 부모로부터 위로와 감동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예를 들어, 참여자 중 50대 여성과 30대 여성은 낳아주고 키워주며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부모와의 강한 유대감을 표현하였다. 이러한 유대감과 관련하여 40대 여성은 어머니를 자주 만나지 못하면 보고 싶고 그리운 마음이 든다고 진술하였다. 어머니를 친구나 언니처럼 속내를 털어놓을 수 있는 존재로 여기며, 사랑하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나

타냈다. 60대 여성은 부모가 자녀에게 베푼 사랑이 오히려 효를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된다고 하며, 부모의 사랑에 감화받는 것이 효의 형성에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40대 여성의 진술은 사랑하는 부모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괴로워서 부모가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위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헌신에 대한 감사

‘헌신에 대한 감사’에는 출산 후 부모에 대한 감사의 마음, 부모로 인한 자존감의 향상, 헌신적인 존재에 대한 감사, 부모에게 받은 것이 많아 느끼는 효행의 부족감 등의 의미 단위가 포함되었다.

이는 참여자들이 부모의 헌신에 감사하고, 자신이 효를 충분히 실천하지 못했다는 인식을 드러낸 진술들이다. 30대 여성은 출산을 경험한 이후 부모님의 헌신을 실감하게 되었으며, 부모로부터 받은 돌봄과 존중이 자신의 자존감을 형성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밝혔다. 40대 남성은 과거 자신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며 아낌없이 헌신했던 부모의 모습을 회상하였다. 20대 여성은 부모에게 잘해드리는 자기 행동이, 부모로부터 받은 헌신에 비해 너무 작고 부족하게 느껴진다고 하였으며, 부모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효가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삶의 근원적인 힘

‘삶의 근원적인 힘’에는 힘든 상황을 이겨내게 하는 내적인 원천, 어머니에 대한 의존 경험, 그리고 어머니가 가족을 모이게 하는 구심점의 역할과 같은 의미 단위가 포함되었다.

이는 부모가 힘든 상황을 견디게 하는 내적 원천이자, 가족을 하나로 모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40대 여성은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도 부모의 존재 자체가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 60대 남성은 부모가 어린 시절에는 의지할 수 있는 산 같은 존재였고, 지금도 여전히 강인한 존재로 인식된다고 회상하였다. 50대 여성은 부모가 가족들을 하나로 모이게 하는 구심점 역할을 하였기에, 가족 중심의 삶을 지속할 수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또 다른 60대 남성은 어머니가 생존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형제들이 모일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어머니가 가족을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효행에서 비롯되는 내적 만족

‘효행에서 비롯되는 내적 만족’에는 부모에게 효도함으로써 생기는 자궁심, 효 실천을 통해 얻게 되는 행복감, 효를 통한 가족 화목과 분위기 향상, 베풀을 통해 얻는 즐거움과 같은 의미 단위가 포함되었다.

참여자들은 효행을 통해 자신에 대한 자궁심과 행복감을 느끼고, 가족 분위기가 좋아졌으며, 베풀에서 오는 즐거움을 경험했다고 진술하였다. 예를 들어, 40대 여성은 부모에게 잘해드린 경험을 통해 자기효능감을 느꼈으며, “무언가 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자궁심이 생겼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효를 실천하면서 가족들과의 관계가 원만해지고 집안 분위기가 좋아져 행복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60대 여성은 주변 사람들로 부터 효행에 대한 칭찬을 들을 때 기분이 좋아졌으며, 그로 인해 부모에게 더 잘하려는 마음이 생겼다고 표현하였다. 20대 여성은 부모와 가족에게 무언

가를 배운 경험에서 즐거움을 느꼈다고 이야기하였다.

당연한 인간의 도리

‘당연한 인간의 도리’는 효에 대한 당위 인식, 부모 은혜에 대한 보은, 노부모에 대한 연민, 돌보는 자의 책임감과 같은 범주들을 포함하고 있다.

효에 대한 당위 인식

‘효에 대한 당위 인식’에는 자식으로서나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 효행을 당연한 일로 여기는 인식, 부모를 늘 생각하는 태도, 전통적 사회의 가르침과 같은 의미 단위가 포함되었다.

참여자들은 효가 당연한 것이라는 점을 공통으로 강조하였다. 예를 들어, 60대 남성은 효도는 자식이자 인간으로 해야 할 도리이며, 이를 외면하면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다고 진술하였다. 50대 남성은 부모에게 잘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인데, 그것을 특별히 칭찬받는 것이 오히려 어색하다고 표현하였다. 40대 여성은 부모와 함께할 시간이 유한하기에 효도는 늘 마음속에 두고 실천해야 한다고 밝혔다. 30대 남성은 유교 문화권이었던 한국 사회에는 아직도 효를 강조하는 문화가 남아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부모 은혜에 대한 보은

‘부모 은혜에 대한 보은’에는 부모 덕분에 태어나고 자란 데 대한 감사의 마음, 부모의 양육에 대한 보은, 노년기 부모에 대한 애틋한 마음과 같은 의미 단위가 포함되었다.

참여자들은 자신을 낳아주신 부모에게 감사

함을 느끼고, 그 은혜를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마음을 드러냈다. 40대 남성은 부모 덕분에 태어나고,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부모의 보살핌 속에서 살아올 수 있었기에 감사해야 한다고 고백하였다. 50대 여성은 부모를 보살피는 일이 힘들더라도 자신을 키워주신 것을 생각하면 불평해서는 안 된다고 진술하였다. 50대 남성은 자녀를 키우며, 늙고 힘이 빠진 부모를 바라보는 애틋한 마음을 표현하였다.

노부모에 대한 연민

‘노부모에 대한 연민’에는 나이 든 부모에 대한 측은지심, 부모를 편히 모셔야 한다는 숙제 의식, 노부모에 대한 효행의 필요성에 대한 성찰, 치매 어머니에 대한 연민과 안타까움과 같은 개념이 포함되었다.

참여자들은 노부모에 대한 측은지심을 드러냈다. 예를 들어, 50대 여성은 기력이 쇠한 부모를 보며 가엾고 불쌍한 마음이 든다고 하였다. 50대 남성은 부모가 살아 계시는 동안 편안하게 모시는 일을 자신에게 부여된 숙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40대 남성은 연로하여 건강이 나빠진 부모를 보며 효도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게 되었다고 토로하였다. 또한 치매 증상이 있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느꼈다는 60대 남성도 있었다.

돌보는 자의 책임감

‘돌보는 자의 책임감’에는 부모에 대한 보호자적 책임감, 효행에 대한 도리로서의 책임감, 부모의 보호자가 되었다는 역할 인식, 부모 봉양에 대한 윤리적 책임감과 같은 의미 단위가 포함되었다.

참여자들은 노부모의 보호자가 되었다고 느끼고 책임감을 나타냈다. 30대 여성은 부모를

이제는 아이처럼 돌봐드려야 하는 대상으로 이해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50대 여성은 부모를 보살펴야 하는 대상이 되었기에, 자신이 이제 부모의 보호자가 된 것 같다고 느끼고 있었다. 또 다른 30대 여성은 부모에게 불쌍한 마음이 들고, 봉양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낀다고 하였다. 40대 남성은 이러한 책임감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삶의 안정과 안녕을 지지하는 효

‘삶의 안정과 안녕을 지지하는 효’는 상호 안정 지향 효행, 정성 어린 경제적 돌봄, 일상 속 소통과 배려, 식사를 통한 정서적 교감과 같은 범주들을 포함하고 있다.

상호 안정 지향 효행

‘상호 안정 지향 효행’에는 부모의 안녕을 위한 효행, 부모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하는 배려, 부모의 순조로운 생활을 위한 일상 지원과 같은 의미 단위가 포함되었다.

참여자들은 효행이 부모와 자신 모두의 삶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40대 여성은 자신이 건강하고 행복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부모에게 효가 될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 60대 남성은 부모가 좋아하는 일을 하도록 돕는 것이 효도이며,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든다고 하였다. 50대 남성은 부모가 예전처럼 순조롭게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부모를 위한 일이며, 그렇게 해드려야 자신 또한 마음이 편하다고 진술하였다.

정성 어린 경제적 돌봄

‘정성 어린 경제적 돌봄’에는 부모로부터의

경제적 자립, 부모의 노후에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 지원, 수명 연장에 따른 경제적 지원 필요성 인식, 기념일 챙기기를 통한 관심 표현과 같은 의미 단위가 포함되었다.

참여자들은 노부모에게는 마음을 담은 물질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40대 여성은 자녀로서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자립하는 것이 부모의 안정된 경제생활을 돕는 것으로서 효행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40대 남성은 부모가 노후에 돈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으며, 기대수명이 증가한 만큼 경제적 지원의 필요성도 커졌다고 강조하였다. 60대 남성은 생일이나 명절과 같은 기념일을 챙기고 관심을 표현하는 것이 부모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고 보았다.

일상 속 소통과 배려

‘일상 속 소통과 배려’에는 전화 및 방문을 통한 일상 대화의 실천, 따뜻한 언어 표현과 신체접촉을 통한 관계 증진, 여가를 공유하려는 노력, 부모의 의견에 대한 경청과 수용과 같은 의미 단위가 포함되었다.

참여자들은 부모와의 소통과 일상에서의 배려를 효도의 기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50대 남성은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마다 부모에게 전화를 드리거나 방문하여 대화하고 안부를 묻는 것을 생활화하고자 했다고 진술하였다. 60대 여성은 큰 것을 해 드리지는 못해도 부모에게 소소한 것들을 챙기고 시간을 함께 보낸 것이 효행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었다. 40대 여성도 부모를 방문하여 여가 시간을 함께 보내려 노력한다고 하였다. 부모와 의견이 다르더라도 끝까지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태도가 자식으로 해야 할 도리이며,

그것 또한 효의 일부분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20대 여성은 부모의 의견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수용하려 노력한다고 하였다.

식사를 통한 정서적 효행 실천

‘식사를 통한 정서적 효행 실천’에는 식사를 통한 가족 유대 강화, 식사 대접에 의한 부모의 만족감에 대한 인식, 노부모의 식사 챙김에 대한 열정, 먹을 것을 자주 보내는 음식 돌봄의 실천과 같은 의미 단위가 포함되었다.

참여자들은 부모와 함께 식사하거나 음식을 챙기는 행위를 단순한 먹거리 제공을 넘어 정서적 교감의 방식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60대 남성은 부모와 삼대가 함께 식사하는 것은 가족 유대감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며, 부모에게는 효행으로 여겨질 수 있다고 보았다. 60대 여성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부모라도 자녀가 식사를 대접하면 기뻐하신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50대 남성은 맛있는 음식을 즐기는 아버지를 위해 직접 요리법을 배워 음식을 해 드린다고 하였으며,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음식을 자주 챙겨 보내드린다고도 진술하였다.

효에 대한 양가감정

‘효에 대한 양가감정’은 돌봄의 현실적 제약, 가족 내 역할 충돌, 경제적 부담과 정서적 갈등, 일상 구조 속 실천의 제약과 같은 범주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 상위 범주는 효를 실천하려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단점이나 어려움으로 인해, 효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경우가 있음을 시사한다.

돌봄의 현실적 제약

‘돌봄의 현실적 제약’에는 부모의 안녕을 위한 효행, 부모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하는 배려, 부모의 순조로운 생활을 위한 일상 지원과 같은 의미 단위가 포함되었다.

참여자들은 부모를 돌보는 과정에서 많은 현실적 제약을 경험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60대 여성은 어머니를 모시면서 자신의 몸이 상했던 경험을 고백하였다. 50대 남성은 부모를 지원하면서 소비되는 금액으로 인해 아내의 눈치를 보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부모를 돌보는 일이 가족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30대 여성은 부모를 돌보다 보면 자신이 속한 가정, 직장생활, 취미생활을 희생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하였다. 50대 여성은 이러한 문제들이 부모를 요양원에 모신 후 어느 정도 해결되었으며, 전문적인 보살핌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다.

가족 내 역할 충돌

‘가족 내 역할 충돌’에는 부모 돌봄으로 인해 부족해진 아내 역할에 대한 아쉬움, 부모와의 동거로 인한 결혼생활의 문제, 자녀 양육으로 인해 부모를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는데 대한 안타까움과 같은 의미 단위가 포함되었다.

참여자들은 서로 다른 역할 간의 충돌을 경험한 내용을 진술하였다. 50대 여성은 아버지를 돌보느라 남편에게 소홀해진 것에 대해 미안함을 느꼈으며, 아내로서 결혼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점을 안타까워하였다. 반면, 40대 여성은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와 온전히 관계를 맺고 지낼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였다. 50대 남성은 자녀들에게 아버지 역할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부모를 모시는 일이 어렵다고 토로하였다.

경제적 부담과 정서적 갈등

‘경제적 부담과 정서적 갈등’에는 경제적 지원에 대한 망설임과 죄책감, 경제적 부담감에 따른 효 실천의 곤란함, 부모 은퇴 후 생활에 대한 재정적 걱정과 같은 의미 단위가 포함된다.

참여자들은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효를 실천하는 것이 어렵다고 표현하였다. 예를 들어, 40대 여성은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망설이는 자기 모습에 죄책감을 느낀다고 하였다. 60대 여성은 어린 시절 집안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거의 받지 못했는데, 나이가 들어 어머니가 자신에게 경제적으로 의지하려는 모습을 보이자 효를 실천하는 것이 꺼려졌다고 고백하였다. 30대 여성은 부모가 노후 준비를 해왔다 하더라도 은퇴 전보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을 것이기에, 지금부터 부담감이 생긴다고 하였다.

일상 구조 속 실천의 제약

‘일상 구조 속 실천의 제약’에는 바쁜 일상에서 효행이 뒷순위로 밀리는 현상, 심적 여유 부족으로 인한 효 실천의 한계, 효를 위한 시간과 에너지 소비에 대한 부담감과 같은 의미 단위가 포함되었다.

참여자들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효를 실천하기 어렵다고 토로하였다. 40대 남성은 현대인의 삶이 너무 바빠 효가 뒷전으로 밀리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30대 남성 또한 직장 과 가정생활로 인해 효에 대해 생각할 시간조차 없고, 마음에 여유가 생길 때에야 어머니가 떠오른다고 고백하였다. 40대 여성은 효는

시간과 에너지를 기꺼이 투자해야 하는 일이며, 그러한 희생이 있어야 진정한 효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하였다.

효를 실천하지 못한 데 대한 안타까움

‘효를 실천하지 못한 데 대한 안타까움’에는 부모 감정에 남긴 상흔에 대한 인식,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자책감, 시간성과 유한함에 대한 자각과 같은 범주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 상위 범주는 효를 실천하지 못한 것에서 비롯되는 아쉬움을 나타내며, 부모의 마음에 남긴 상처에 대한 죄책감, 거친 언행에 대한 후회, 부모 세대와 함께 나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경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부모 감정에 남긴 상흔에 대한 인식

‘부모 감정에 남긴 상흔에 대한 인식’에는 부모를 부끄럽게 여긴 태도에 대한 반성, 부모를 귀찮아했던 태도에 대한 후회, 갈등 상황에서 부모에 대한 배려 부족에 대한 자각과 같은 의미 단위가 포함되었다.

참여자들은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경험에 대해 후회와 죄책감을 표현하였다. 예를 들어, 60대 여성은 성장 과정에서 부모를 부끄럽게 여기고 비난하며 상처를 주었던 것을 반성하고 있었다. 30대 여성은 부모를 귀찮아하고 불평과 불만을 표출했던 자신의 태도를 후회하였다. 60대 남성은 짜증이 날 때 부모에게 소리를 지르고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던 점에 대해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진술하였다.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자책감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자책감’에는 부모에

대한 물리적 폭력에 대한 후회, 아버지와의 논쟁에 대한 후회와 죄책감, 부모의 뜻에 순응하지 못한 점에 대한 후회, 부모에게 무례하게 행동한 것에 대한 자책과 같은 의미 단위가 포함되었다.

참여자들은 부모에게 거칠게 대했던 과거를 자책하고 있었다. 20대 남성은 갈등 중 아버지에게 물리적 힘을 사용한 일에 대해 깊은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다. 50대 여성은 아버지가 치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논쟁을 벌였던 것을 자책하였다. 또 다른 20대 남성은 부모의 요구에 순응하지 못하고 말대꾸했던 점을 후회하고 있었다. 40대 여성은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부모에게 예의를 지키며, 통명스럽고 무례하게 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시간성과 유한함에 대한 자각

‘시간성과 유한함에 대한 자각’에는 부모와 함께 경험하는 노화로 인한 효 실천의 곤란, 부모 직접 돌봄에 대한 의무감과 중년의 피로감, 잘해드리지 못한 아버지의 부재에 대한 상실감과 죄책감, 부모와 보내는 시간의 유한함에 대한 인식과 같은 의미 단위가 포함되었다.

참여자들은 부모 세대와 함께 나이 들어감에 효를 실천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60대 여성은 자신도 부모 세대와 함께 나이 들면서 삶에 집중하다 보니 부모를 돌보는 일이 쉽지 않다고 토로하였다. 50대 여성은 부모를 모셔야 한다는 압박을 가지고 있으나, 자신이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일이 더욱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느끼고 있었다. 30대 남성은 생전에 잘해드리지 못한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에 대

한 효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40대 남성은 부모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효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었다.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새로운 효 개념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새로운 효 개념’에는 돌봄 방식의 현실화, 현대적 효행의 실천 양상, 부모와 자녀 간 기대의 효행, 전통 및 어른 존중 태도와 같은 범주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 상위 범주는 새로운 시대의 변화 속에서도 전통적 가치가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부모 돌봄 방식의 현실적 변화, 행동으로 나타나는 효, 기대되는 효, 어른과 전통을 존중하는 현대인의 태도를 시사한다.

돌봄 방식의 현실화

‘돌봄 방식의 현실화’에는 자녀 순서와 관계없는 돌봄의 재구성, 조부모를 끝까지 모신 어머니를 본받으려는 태도, 부모와 가까운 곳에 거주하며 실천하는 효, 부모를 시설에 모신 후 심리적·물리적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과 같은 의미 단위가 포함되었다.

참여자들은 효를 실천하는 방식이 과거와는 달라졌다고 보고하였다. 예를 들어, 60대 남성은 과거에는 장남이 부모를 모시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40대 남성은 자신의 어머니가 고부 갈등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오랫동안 모시고, 동시에 친정어머니도 돌보았던 모습을 닮고 싶다고 표현하였다. 50대 남성은 부모와 함께 거주하지는 않더라도 가까운 곳으로 이사해 실질적인 지원을 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60대 여성은 과거에는 부모를 집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모시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요즘은 거동이 불편한 부모를 요양 시설에 모시고 자주 방문하며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오히려 더 효율적인 효의 실천이라고 하였다.

현대적 효행의 실천 양상

‘현대적 효행의 실천 양상’에는 부모는 모셔야 한다는 인식과는 달리 자녀에게는 그저 잘 살아주기를 바라는 태도, 단란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 효의 실천이라는 인식, 전화와 다정한 말투를 통한 정서적 돌봄의 실천, 음식과 용돈을 챙기는 것을 실질적인 효로 여기는 인식과 같은 의미 단위가 포함되었다.

참여자들은 현시대에서 효를 실천하는 방식에 대해 각자의 입장을 설명하였다. 예를 들어, 40대 남성은 부모를 모시고 살아야겠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지만, 자기 자녀에게는 그러한 기대를 하지 않으며 그저 잘 살아주기를 바란다고 진술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30대 남성은 자신이 자녀를 낳고 단란한 가정을 꾸려살아가는 것 자체가 효의 실천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40대 여성은 부모에게 자주 전화하여 안부를 묻고, 때로는 비교적 긴 시간 동안 다정하게 대화를 나눈다고 하였다. 30대 여성은 요즘 부모는 맛있는 음식을 사드리고 여행을 보내드리거나, 비교적 많은 용돈을 드리는 것을 기쁘게 여기신다고 이야기하였다.

부모와 자녀 간 기대에 근거한 효행

‘부모와 자녀 간 기대에 근거한 효행’에는 잦은 연락과 관심 표현에 대한 기대 충족, 상냥한 말투와 안부 인사에 대한 기대 충족, 부모에게 감정을 표현하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 속마음을 편하게 나눌 수 있는 관계에 대한

기대 충족, 자녀 가정과의 적절한 거리 유지에 대한 필요 인식과 같은 의미 단위가 포함되었다.

참여자들은 부모의 기대를 충족시켜 드리는 것이 곧 효도라고 생각하며, 자신 또한 자녀에게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예를 들어, 60대 여성은 자신이 나이가 들면서 아들이 자신을 챙기는 모습을 보고 기쁘게 느꼈으며, 이제는 과거 부모가 그런 기대를 품었던 이유를 이해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어머니께 최선을 다해 효를 실천했지만, 아들이 공손한 말투로 인사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좋아진다고 표현하였다. 50대 남성은 자신은 부모에게 살갑게 대하지 못했지만, 자녀는 자신에게 그렇게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녀가 없는 20대 남성은 훗날 자녀가 생긴다면 자주 얼굴을 보고 진심을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30대 남성은 자신이 효를 중시하다 보니 아내와 갈등을 겪었으며, 그 경험을 통해 부모와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가정 내 불화를 예방하는 데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전통 및 어른 존중 태도

‘전통 및 어른 존중 태도’에는 윗세대에 대한 긍정적 존중의 필요성, 어른 공경 문화가 점차 사라지는 것에 대한 아쉬움, 어른을 배려하는 가치의 회복 필요성, 조부모에 대한 감사함을 자녀에게 교육할 필요성과 같은 의미 단위가 포함되었다.

참여자들은 효를 전통과 어른을 존중하는 태도와 연결된 개념으로 바라보기도 하였다. 50대 남성은 자녀가 부모를 존중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 전반에서 윗세대를 존중

하는 문화가 더욱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60대 남성은 효의 정신뿐만 아니라 동네 어른들에게 인사하는 문화가 사라져 가는 현실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였다. 20대 남성 또한 부모를 포함한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배려하는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50대 여성은 자녀에게 조부모에 대한 감사함을 가르치는 것이 효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데 필요하다고 진술하였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질적 분석을 통해 현시대 한국인들의 효심을 탐구하였다. 본 연구는 세대별 효 개념의 비교를 목적으로 삼지는 않았으나, 비교적 다양한 연령층의 참여자 진술을 통해 세대 간 효 인식의 공통점과 변화 양상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연구 결과, '내리사랑 속에서 자란 치사랑', '당연한 인간의 도리', '삶의 안정과 안녕을 지지하는 효', '효에 대한 양가감정', '효를 실천하지 못한 데 대한 안타까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새로운 효 개념'이라는 여섯 가지 상위 범주가 도출되었으며, 이는 한국인의 효와 관련된 심리적 양상을 반영한 것이다. 이 중 '내리사랑 속에서 자란 치사랑'과 '당연한 인간의 도리'는 효에 대한 인식으로, '삶의 안정과 안녕을 지지하는 효'는 실천으로서의 효로 볼 수 있다. 또한 '효에 대한 양가감정'과 '효를 실천하지 못한 데 대한 안타까움'은 효와 관련한 심리적 경험을,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새로운 효 개념'은 세대 간 효 인식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분류를 바탕으로 도출된 결과들을 다음과 같

이 해석하고 논의하고자 한다.

내리사랑 속에 자란 치사랑: 관계적 경험을 통해 형성된 효 인식

'내리사랑 속에 자란 치사랑'은 부모로부터 아낌없이 받은 사랑과 돌봄의 경험이 자녀의 내면에 정서적 기반을 형성하고, 그것이 효심으로 연결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는 효를 단순한 규범적 의무나 사회적 도리가 아닌, 관계적 경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정서적 반응으로 보는 관점을 반영한다. 참여자들은 부모의 헌신을 떠올리며 '부모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라는 마음가짐으로 효를 실천하고 있었으며, 이는 정서적 친밀감과 감사의 감정에서 비롯된 자발적인 태도로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전통적 유교문화에서 강조된 효 개념, 즉 신체보전, 입신양명, 순종과 같은 외적 가치 중심의 효 실천과는 구분되는 흐름이다. 김황기(2016)가 분류한 효의 실천 요인 중 '감사하는 효'와도 연결되지만, 본 연구에서 드러난 참여자들의 효 인식은 더 개인화되고 정서화된 양상을 보인다(Pan et al., 2022). 또한 이 범주는 자녀가 부모에게 감정적으로 빚졌다고 느끼는 전통적 '보은' 개념과도 차별된다. 오히려 부모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꺼이 되돌려주고자 하는 정서적 유대와 심리적 통합의 성격이 강하다(Zhou et al., 2020). 이는 Yeh와 Bedford(2003)가 제시한 이중효 모형 중 호혜적 효 개념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호혜적 효는 자녀가 부모에게 느끼는 사랑과 감사를 정서적으로 표현하고, 이를 돌봄과 관심이라는 형태로 실천하는 것을 의미한다(Bedford & Yeh, 2021). 본 연구에서 확인된 효 인식도 정서적 친밀성과 보살핌의 정동적 차

원에서 유사한 구조를 지닌다.

그런데 이런 해석이 전통적 효 개념과 완전히 단절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유교 전통 속에서도 부모에 대한 사랑과 감사는 효의 중요한 구성요소였으며, 정서적 요소는 언제나 존재해 왔다. 다만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진술한 효는 그런 정서적 기반이 도리나 책임보다 앞서는 동기이자 실천의 핵심으로 재구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관계 중심의 효'에 더 가깝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처럼 이 범주는 전통 효 개념과의 단절이 아닌 연속성과 변화의 공존이라는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Cheng과 Chan(2006), Sun 등(2019)의 연구에서 밝혀진 것처럼, 이런 효 실천은 부모뿐만 아니라 자녀 자신의 삶의 만족감과 웰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Chong & Liu, 2016). 그런 관점에서 보면, '내리사랑 속에 자란 치사랑'은 효를 더 이상 도덕적 부담이나 외재적 규범이 아닌, 관계 속에서 자발적으로 형성되고 실천되는 정서적 반응이자 자율적 행위로 바라보는 현대인의 심리를 잘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효의 개념이 전통에서 강조된 일방적인 도리나 의무에서 벗어나, 자녀의 정체성, 감정, 관계 중심의 가치로 재구성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점이다.

당연한 인간의 도리: 효를 도덕적 의무로 인식하는 지속된 규범

‘당연한 인간의 도리’는 효를 선택할 수 있는 가치가 아니라, 인간이라면 응당 실천해야 하는 도덕적 책무로 인식하는 참여자들의 태도를 반영한다. 참여자들은 효를 단순한 정서적 보답이나 관계적 상호성 이상의 개념으로

받아들이며, 부모에게 잘하는 것은 자식으로서의 기본이자,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인식은 전통 유교 문화에서 강조해 온 효의 규범적 성격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Ngoc, 2025).

한국 사회는 오랜 시간 동안 효를 가족윤리의 핵심으로 삼아 왔으며, 이러한 맥락 속에서 효는 단지 감정적 반응이 아닌 사회적 도리, 즉 사람됨의 증거로 간주했다. 성규탁(1994)은 효의 동기를 책임, 의무, 보은과 같은 윤리적 차원에서 설명하였고, 김황기(2016)는 순종, 공경, 보은을 중심으로 효 실천의 내용을 구분한 바 있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 또한 부모에 대한 효가 개인적 판단의 영역이 아니라 존재의 바탕에서 비롯된 책임이라는 점을 반복적으로 언급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이중 효 모형에서 설명한 권위주의적 효의 구조와 일정 부분 맞닿아 있다. 권위주의적 효는 전통적 가족 질서 속에서 부모에 대한 존경과 복종을 강조하며, 자녀가 능동적으로 선택하기보다는 외적 기대에 따라 실천하는 형태를 띈다. 그러나 본 연구 참여자들은 단순한 복종이나 외적 압력보다는, 부모가 해온 삶과 희생을 돌이켜 보며 ‘그렇게 해야 마땅하다’라는 자율적 동기를 표현했다는 점에서 권위주의적 효와는 구별되는 정서적 내면화의 양상을 보였다.

한편 ‘도리로서의 효’는 세대 간 인식 차이 속에서도 여전히 강한 사회문화적 지속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Chang & Wang, 2024). 특히 중장년층 이상은 효를 책임이자 윤리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두드러졌으며, 이는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효가 사회적 기대와 역할 규범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동시에 청년층도 효를 단지 감정의 표현만으로

는 설명하지 않고,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책임의 일종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을 보여준다. 결국 ‘당연한 인간의 도리’라는 범주는 효가 단순히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개인의 도덕성과 인간관계의 바탕으로 여전히 의미가 있다는 점을 드러낸다. 효에 대한 인식이 정서적 친밀감뿐 아니라 윤리적 책무로서의 성격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는 효 개념이 관계성과 규범성이라는 두 차원 모두에서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삶의 안정과 안녕을 지지하는 효: 일상적 실천과 정서적 돌봄으로서의 효

‘삶의 안정과 안녕을 지지하는 효’는 효가 단순히 전통적 도리나 감정 표현에 머무르지 않고, 부모의 심리적 평온과 생활의 안정을 지향하는 실천적 행위로 구체화하는 양상을 포착한다. 본 범주는 상호 안정 지향 효행, 경제적 지원, 일상 속 소통과 배려, 식사를 통한 정서적 교감이라는 네 가지 하위 범주를 포함하며, 효가 부모와 자녀 모두의 웰빙(well-being)을 지지하는 주요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참여자들은 부모의 안녕과 생활 안정이 곧 자녀 자신의 심리적 안정을 돕는다는 인식을 공유하였다. 예컨대 자녀가 부모와 자주 소통하거나, 정서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신호를 주는 행동들, 부모가 좋아하는 활동이나 식사를 지원하는 구체적 노력은 단지 ‘잘해드리는 것’을 넘어 삶의 질을 함께 안정시키는 상호적인 효의 형태로 나타났다. 이는 효가 전통적 의미의 봉양이나 보은을 넘어서 생활 기반의 정서적 실천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Dong 등(2012)은 이러한 변화된 효의 개념

을 잘 설명한다. 그들은 효의 핵심을 ‘정서적 돌봄(emotional caregiving)’에 두며, 부모와의 지속적인 소통, 관심 표현, 식사나 방문 등을 통해 고령 부모의 건강과 웰빙을 지지하는 형태로 효가 실현된다고 보았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 또한 음식을 챙기거나 여가를 함께하는 일상을 통해 효를 실천하고 있었으며, 이는 정서적 연결과 안정의 경험으로 이어졌다. 특히 ‘함께 밥을 먹는 것’이나 ‘좋아하는 음식을 챙겨드리는 것’과 같은 식사 기반 효행은 가족 간 유대를 강화하는 핵심 실천으로 간주하였다. Zheng와 Li(2022)도 자녀의 효심이 부모의 외로움 감소와 삶의 만족 증진에 기여한다고 보고하며, 효가 가족 구성원 간의 정서적 유대 회복의 수단으로 작용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Chong과 Liu(2016)는 물질적 지원보다 정서적 상호작용이 중장년층에게 더 중요한 효의 방식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본 연구 참여자들은 경제적 지원의 필요성도 인정했지만, 부모의 기쁨과 안정이 정서적 교류를 통해 유지된다고 보았으며, 효가 일상에서 구현되는 정서적 노력임을 강조하였다.

한편 본 연구 참여자들은 효를 실천함으로써 자기 자신도 정서적 안정감과 만족감을 얻는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자녀로서 부모를 보살피고 기쁘게 해 드리는 경험은 자신이 ‘잘 살아가고 있다’라는 자기 인식을 강화하며, 삶의 자존감을 증진하는 긍정적 자극이 되었다. 이러한 관점은 Liu 등(2020)의 연구와도 연결된다. 그들은 성인 자녀가 효를 실천하면서 경험하는 자기평가와 부모에 대한 감정의 일치 여부가 자녀 자신의 심리적 웰빙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다시 말해, 효 실천은 양방향 정서적 상호작용으로 작동

하며, 부모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상호성 기반 실천이다. 종합적으로 볼 때, ‘삶의 안정과 안녕을 지지하는 효’는 효 개념이 현대 사회에서 관계 중심적이고 실천 기반의 정서적 돌봄 형태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통적인 규범 중심 효 개념에서 벗어나, 효는 이제 가족 구성원 전체의 심리적 웰빙을 위한 실질적인 정서적 교류이자, 서로의 삶을 지탱하는 안정의 기제로 자리 잡고 있음을 시사한다.

효에 대한 양가감정: 전통과 현실 사이에서의 심리적 갈등

‘효에 대한 양가감정’은 자녀가 부모를 향해 느끼는 사랑과 감사의 감정이 때때로 죄책감, 부담감, 불만과 혼재하는 심리적 복잡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양가감정은 단순히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전통적 가치와 현대적 삶의 구조 속에서 발생하는 정체성과 역할 간의 충돌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처럼 유교적 전통이 뿌리 깊은 문화에서 자녀는 부모에게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효행을 실천해야 한다는 사회적 기대를 받는다. 하지만 현실은 경제적 부담, 물리적 한계, 개인의 삶과 경력 등의 이유로 인해 그러한 기대를 충족시키기 어렵고, 이로 인해 자녀는 심리적으로 죄책감과 불만, 분노 등의 양가적 감정을 경험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도 참여자들은 효를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으나, 경제적 제약이나 일상생활의 피로감 속에서 실행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감정의 혼란을 드러냈다.

이러한 감정의 이중성은 해외 선행연구들에서도 비슷한 양상으로 확인되었다. Pine과

Steffen(2019)은 가족 내 노인 돌봄 관계에서 양가감정과 정서적 긴장감이 스트레스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하였고, Chang 등(2011)은 중국계 가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요양원 입소 결정 과정에서 자녀들이 경험하는 양가감정이 큰 심리적 갈등과 부정적 감정을 유발한다고 밝혔다. 또한, Zhang 등(2019)은 그런 감정이 단지 가족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변화와 전통 가치 간의 충돌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한다. 더불어 한 메타분석(Pan et al., 2022)에 따르면 효에 대한 내적 기대와 실제 수행 간의 괴리는 돌봄 부담(caregiver burden)을 증폭시키며, 그로 인해 자녀들은 효를 실천하면서도 감정적 소진을 경험하게 된다고 한다. 이는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효를 실천하면서 느끼는 갈등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양가감정은 단지 부정적으로만 해석되기보다는, 현대 사회에서의 효의 의미가 변화하고 있으며, 그것이 단선적인 규범이 아닌 복합적 가치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Bedford와 Yeh(2021)도 이중효 모형을 발전시켜 권위적 효에서 벗어나 감정적 교류와 자율성을 포함하는 새로운 효 개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가 도출한 ‘효에 대한 양가감정’은 단순한 개인적 문제를 넘어, 한국 사회에서 효가 변화하는 양상과 그로 인한 정체성, 역할 간 갈등을 반영하는 중요한 심리적 지표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추후 양적 연구에서 감정적 갈등, 죄책감, 부담감 등 다양한 정서적 반응을 포함하는 척도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효를 실천하지 못한 데 대한 안타까움: 실천의

유예에서 비롯된 후회와 자책의 정서적 경험

‘효를 실천하지 못한 데 대한 안타까움’은 자녀들이 효를 실천하지 못했거나 부족하게 느꼈던 경험에 대해 갖는 감정적 반응이다. 부모에 대한 효를 다하지 못했다는 자책감과 후회는 한국 성인 자녀들에게 강한 심리적 인상을 남긴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효를 실천하지 못한 데 대한 안타까움’이라는 상위 범주는 특히 세 가지 층위에서 나타난다. 첫째, 과거 부모의 감정을 상하게 했던 기억에 대한 인식, 둘째,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자책감, 셋째, 부모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유한하다는 자각이다. 이러한 정서적 반응은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효 개념의 내면화와 자기반성을 포함한 복합적인 심리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연구 참여자들은 부모를 귀찮게 여기거나 불평을 늘어놓았던 과거를 후회하고, 때로는 무례하거나 거친 언행, 혹은 물리적 갈등의 기억을 자책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단순한 행동의 반성이라기보다,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정서적으로 유대를 느끼고 있었던 증거이기도 하다. 특히 부모의 부재 이후에 나타나는 상실감과 함께 복합적인 죄책감이 심화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감정은 시간의 흐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를 통해 효의 실천은 해당 시기에만 가능한 행위로 인식되며, 놓친 기회는 되돌릴 수 없는 상처로 남게 된다.

이와 관련된 정서는 해외 선행연구들에서도 보고되었다. 예를 들어, Chan 등(2012)은 부모의 말기 간호를 맡았던 자녀들이 효를 다하지 못했다는 후회와 죄책감을 경험한다고 보고하며, 이러한 감정은 개인의 존엄성 유지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Che 등(2022)은

부모 임종 전후의 정서 반응 중 “자신의 최선을 다했기에 후회가 없다”는 태도와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라는 후회 사이의 틈새가 자녀의 정서적 안녕에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Liu 등(2020)은 중국계 이민자 자녀들의 심리적 웰빙에 있어 효행의 기대와 실제 수행간의 차이가 정신건강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며, 효 수행의 실패가 우울감이나 죄책감과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이 감정은 단지 개인적 후회로만 머무르지 않고, 사회적·문화적 기대와도 연결된다. 전통적으로 효는 반드시 수행되어야 할 도리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것을 다하지 못한 경험은 사회적 낙인처럼 작용할 수 있다. 특히 부모 생존 당시의 갈등이 제대로 해소되지 못했을 경우, 사망 이후 더욱 깊은 감정적 고통이 동반된다. 이는 ‘권위적 효’ 전통 아래서는 효 실천 실패가 개인의 자존감에 결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 결국 효를 실천하지 못한 데에서 오는 안타까움은 단지 “잘하지 못했다”는 실수에 대한 후회가 아니라,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자기 정체성과 도덕성에 대한 반성이다. 이는 단지 문화적 규범의 내면화 차원이 아니라, 삶의 유한성과 부모-자녀 관계의 유일성에 대한 자각에서 비롯된 실존적 감정이라고도 볼 수 있다.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새로운 효 개념: 시대적 변화와 효 개념의 재구성

이 범주는 전통적인 효의 가치가 유지되는 가운데, 현대적 삶의 구조와 현실에 맞게 효의 실천 방식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참여자들은 더 이상 장남 중심의 봉양이나 함

께 거주하는 방식만이 효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경제적·정서적 지원, 생활 반경 내에서의 심리적 거리 유지, 시설 위탁 등 다양한 실천 형태를 수용하고 있었다. 이는 효의 개념이 더 이상 획일적인 도덕규범이나 문화적 의무로만 작동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변화는 해외 선행연구들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Bedford와 Yeh(2021)는 효에 대한 인식 변화를 설명하면서 ‘가족에서 뼈대로(skin to skeleton)’라는 은유를 통해 전통적 외형 중심의 효에서 내면적 의미와 자율성을 중심으로 한 효 개념으로의 전환을 논의하였다. 이들은 현대 사회에서의 효는 부모의 정서적 욕구에 대한 민감성과 자녀의 자율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방식으로 발전해 왔다고 보았다. Xu(2012) 또한 현대 중국에서의 효는 여전히 가족 간 의무감과 정서적 유대에 기반하지만, 자녀의 자율성과 개인 선택의 중요성 또한 점차 강조되고 있다고 보고한다.

이처럼 현시대의 효 개념은 전통적 효의 핵심 가치와의 단절이 아닌 그 가치의 유연한 재구성의 결과물로 보아야 한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도 효를 인간의 도리로서 내면화하고 있었으나 그것을 실천하는 방식은 가족 구조, 생활 반경, 개별 선택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전통과 현대는 단절된 두 문화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하는 효 개념의 두 축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런 해석은 일부 논의에서 효 개념의 변화가 전통의 해체를 의미하는 것처럼 조망할 가능성에 대한 보완적 설명이 될 수 있으며, 효에 대한 현대인의 인식 변화는 새로운 가치의 생성이 아니라 전통 가치의 ‘재맥락화’라는 관점에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현대인들은 자녀에게 부모를 직접

모시라고 기대하기보다는, 전화, 정기적인 만남, 정서적 표현, 경제적 지원 등을 통해 ‘잘 살아가는 것’이 효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다. 이는 Zhang 등(2019)의 연구에서 확인된 것처럼, 치매 부모를 돌보는 가족들이 전통적 돌봄의 방식보다 상호 존중과 정서적 안정의 유지가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경향과도 맞아 있다. 또한 참여자들이 제시한 ‘시설 위탁 후 자주 찾아뵙는 것’과 같은 실천 방식은 Luo와 Zhan(2012)이 제시한 ‘하청 효도’와도 유사하다. 이는 자녀가 효의 책임을 다른 기관에 위탁하는 것이지만, 정서적 연결을 지속하는 방식으로 이해되며, 효 개념의 실용화이자 문화적 전환의 일면으로 평가된다.

선행연구들은 이러한 변화가 단순한 가치의 해체가 아니라 효 개념의 재구성과 적응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Bedford & Yeh, 2021; Yeh et al., 2013; Xu, 2012). 특히 효가 이제는 자녀의 자율성과 합리성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은 Shi와 Wang(2019)의 삼차원효 모형에서 제안한 ‘합리성’과도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 그런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도 출된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새로운 효 개념’은 시대 변화 속에서 효가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실천되고 있는 한국인의 효 인식을 반영하며, 세대 간 효 개념의 차이를 해석할 수 있는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연구의 한계 및 제언

본 연구는 질적 분석을 통해 현시대 한국인의 효에 대한 인식과 심리를 탐색함으로써, 전통적인 효 개념과의 차이점, 그리고 시대적 맥락에서의 효 개념의 재구성을 조망하는 데

의미가 있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존재한다. 첫째, 참여자 수와 특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반화의 한계이다. 다양한 연령과 성별, 가족 구성 경험을 고려하여 참여자를 모집하였으나, 표본이 소수에 그치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전체 한국인에게 일반화하는 데는 제한이 있다. 특히 특정 세대나 사회계층에 집중되었을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더 다양한 지역 및 계층을 포괄하는 참여자를 바탕으로 한 자료수집이 필요하다. 또한, 현시대 한국인이라는 범주를 탐색하기 위해 세대 간 연령 분포를 고려하였지만 세대 간 차이를 분석하는 데에 특화된 설계는 아니었기 때문에, 추후 연구에서는 명시적으로 세대 비교를 위한 연구를 설계하거나 특정 세대를 중심으로 한 심층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참여자의 자기보고에 의존한 인터뷰 자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회적 요망도(social desirability)의 영향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효는 여전히 도덕적, 사회적 가치로 인식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실제보다 이상화된 진술이 개입되었을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자료수집 방식(예: 관찰, 가족 구성원 간 비교분석 등)을 병행하는 것이 더욱 입체적인 분석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심층 면담을 보완할 수 있는 참여자들 간의 상호작용이 포함된 집중집단면접(Focused Group Interview) 혹은 가족 구성원 간의 비교 회고적 진술 방법을 활용하면 내면적인 효심과 대인관계 맥락에서의 효행의 실천 차이가 더 드러날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주로 심리적 측면에서의 효 개념과 실천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사회구조적 요인이나 정책적 조건이 효 인식

과 실천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분석하지 못하였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 시스템의 변화, 주거 형태의 다변화, 고령화 정책 등의 요소가 효 실천의 방식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구조적 분석은 추후 연구의 과제가 될 수 있다.

넷째, 질적 분석에서 참여자의 성별, 연령 혹은 세대에 따른 효 인식의 차이를 구조화하지 못한 점은 이 연구의 또 다른 한계이다. 본 연구는 각 참여자의 심층적 경험을 중심으로 질적 자료를 범주화하였지만, 분석 결과에 세대별 혹은 성별 차이를 구조적으로 드러내지는 못하였다. 이런 점은 후속 질적 혹은 양적 연구에서 변인 간 비교를 통해 보완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양적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질적 방법을 채택한 탐색적 연구라는 점에서, 향후 보다 정교한 효 개념의 구성 요인을 바탕으로 심리 측정 도구의 개발과 양적 연구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상위 범주 및 범주 체계는 이러한 도구 개발의 기초 틀로 활용될 수 있으며, 특히 현대적 효 개념을 반영한 타당화된 척도의 개발은 후속 연구자들에게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아울러, 추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드러난 범주들을 바탕으로 세대 간의 효 개념의 구조적 차이를 양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강은나, 박세경, 배혜원, 이민홍, 박은정, 오세웅, 홍이진 (2014). 초저출산·초고령사회의 위험과 대응전략: 초고령사회와 노인

- 복지서비스. 세종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대영 (2007.02.13.) 저출산 고령화 사회: 부모 부양 전통 변화한다. 연합뉴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01546800>
- 김보현 (2022). 청소년의 효(孝)의식 척도개발 및 적용 효과에 관한 연구: 효(孝)의식 구조방정식 모델 분석. 배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수정 (2019). 저출산·고령화 시대 한국의 인구 정책에 관한 비판적 고찰. 한국도시지리학회지, 22(2), 143-158.
- 김신희 (2023, 11, 26). 한국인 52.5% “노후 경제 준비 시작도 못 했다.” *Business Plus*.
<https://www.businessplus.kr/news/articleView.html?idxno=51185>
- 김완일, 김옥란, 이호진, 권명훈 (2018). 논문유형별 연구방법론. 싸이언북스
- 김의철, 박영신 (2004). 한국인의 부모자녀 간의 관계. 교육과학사.
- 김의철, 박영신, 권용은 (2005). 한국 세대별 어머니 집단의 가족관련 가치의식 비교: 자녀가치와 양육태도 및 부모부양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1(1), 109-142.
- 김지영, 최상진. (2003). 여성의 효심에 관한 질적인 접근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8(1), 49-67.
- 김태훈 (2012). ‘효’ 덕목의 윤리적 의의에 관한 규범적 연구. 도덕윤리교육, 37, 279-301.
- 김평일 (2001). 내리사랑 올리효도. 서울: 고려원.
- 김황기 (2016). 부모의 효교육이 청소년 진로에 미치는 영향.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류정리 (2013). 중국 대학생의 효의식에 관한 연구. 한서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류정현 (2007). 한국적 부모-자녀 관계, 가족주의, 효. 부모교육연구, 4(2), 81-94.
- 박영신, 안자영, 남인순, 유효숙, 이영남, 차연실 (2018). 중년 성인 원가족의 부모자녀 관계가 자기효능감, 자녀양육과 노부모부양 및 행복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4(2), 153-192.
- 백희연 (2021, 11, 07). “효도? 투자금 회수겠지”...‘낳음 당했다’는 그들의 분노.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21547>
- 변미리 (2015). 도시에서 혼자 사는 것의 의미: 1인가구 현황 및 도시정책 수요.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1(3), 551-573.
- 성규탁 (1994). 현대 한국인이 인식하는 효: 척도와 차원. 한국노년학, 14(1), 50-68.
- 신성대 (2023, 11, 30). 고령자 복지포럼...“초고령사회 노인의 삶의 질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개최. Fn투데이.
<https://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7862>
- 유기웅, 정종원, 김영석, 김한별 (2018).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박영스토리.
- 은기수 (2000). 유교적 삶의 현대적 변용: 효를 중심으로. 인문과학논총, 34, 87-108.
- 이남인 (2005). 현상학과 질적 연구: 응용현상학의 한 지평, 한길사.
- 이흥신 (2012). 초등학교의 바람직한 효 교육에 대한 논의. 효학연구, 16, 69-97.
- 정민, 김동진 (2019). 대학생 효척도 및 타당화. 인문사회21, 10(3), 1463-1475.

- 정옥분, 김광웅, 김동춘, 유기효, 윤종희, 정현희, 최경순, 최영희 (1996). 한국인의 효인식 및 실천 정도에 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4(6), 387-403.
- 최상진 (1994). 한국인의 심정심리학, 사회과학연구 제7집, 중앙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13-237.
- 최상진 (2000). 한국인 심리학. 이진문화사.
- Bedford, O., & Yeh, K.-H. (2021). Evolution of the conceptualization of filial piety in the global context: From skin to skeleton. *Frontiers in Psychology*, 12, e570547.
- Boerner, K., Kim, K., Kim, Y. K., & Jopp, D. S. (2022). Support exchanges among very old parents and their children: Findings from the Boston aging together study. *Gerontologist*, 62(3), 375-384.
- Chan, C. L. W., Ho, A. H. Y., Leung, P. P. Y., Chochinov, H. M., Neimeyer, R. A., Pang, S. M. C., & Tse, D. M. W. (2012). The blessings and the curses of filial piety on dignity at the end of life: Lived experience of Hong Kong Chinese adult children caregivers. *Journal of Ethnic & Cultural Diversity in Social Work: Innovation in Theory, Research & Practice*, 21(4), 277-296.
- Chang, S., & Wang, L. (2024). UbD framework in teaching Confucian filial piety and its relevance in modern society. *Journal of Literature and Art Studies*, 14(11), 1048-1054.
- Chang, Y. P., Schneider, J. K., & Sessanna, L. (2011). Decisional conflict among Chinese family caregivers regarding nursing home placement of older adults with dementia. *Journal of Aging Studies*, 25(4), 436-444.
- Che, S. L., Ng, W. I., Li, X., & Zhu, M. (2022).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filial piety representations at parents' end of life scale. *Healthcare*, 10(6), e1054.
- Chen, W. W., Wu, C. W., & Yeh, K. H. (2016). How parenting and filial piety influence happiness, parent-child relationships and quality of family life in Taiwanese adult children. *Journal of Family Studies*, 22(1), 80-96.
- Cheng, S., & Chan, A. C. M. (2006). Filial piety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well older Chinese. *The Journals of Gerontology*, 61(5), 262-269.
- Cheung, C., Lee, J., & Chan, C. (1994). Explicating filial piety in relation to family cohesion. *Journal of Social Behavior & Personality*, 9(3), 565-580.
- Chong, A. M. L., & Liu, S. (2016). Receive or give? Contemporary views among middle-aged and older Chinese adults on filial piety and well-being in Hong Kong. *Asia Pacific Journal of Social Work and Development*, 26(1), 2-14.
- Chow, N. (2006). The practice of filial piety and its impact on long-term care policies for elderly people in Asian Chinese communities. *Asian Journal of Gerontology & Geriatrics*, 1, 31-35.
- Cohen, L., Shiovitz-Ezra, S., & Erlich, B. (2023). Support for older parents in need in Europe: The role of the social network and of individual and relational characteristics. *Innovation in Aging*, 7(4), igad032.
- Dong, X., Chang, E.-S., Wong, E., & Simon, M. (2012). A qualitative study of filial piety

- among community dwelling, Chinese, older adults: Changing meaning and impact on health and well-being. *Journal of Intergenerational Relationships*, 10(2), 131-146.
- Fu, Y. Y., Xu, Y., & Chui, E. W. T. (2020).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filial piety scale for Chinese elders in contemporary China.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90(2), 176-200.
- Giorgi, A. (2009). *The Descriptive Phenomenological Method in Psychology*. Pittsburgh, PA: Duquesne University Press.
- Guba, E. G., & Lincoln, Y. S. (2005). Paradigmatic Controversies, Contradictions, and Emerging Confluences. In N. Denzin, & Y.S. Lincoln (Eds.), *The Sage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pp. 253-291).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s.
- Ho, D. Y. (1996). Filial piety and its psychological consequences. In M. H. Bond, (Ed), *The Handbook of Chinese Psychology*. (pp. 155-165). Hong Kong: Oxford University Press.
- Ho, D. Y. F., & Lee, L. Y. (1974). Authoritarianism and attitude toward filial piety in Chinese teachers.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92(2), 305-306.
- Khalaila, R. (2010).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the Arabic Filial Piety Scale. *Research on Social Work Practice*, 20, 356-367.
- Khanh Ha, T. T., Różycka-Tran, J., Jurek, P., Ha Thu, T., & Hao, L. V. (2020). Vietnamese version of the Dual Filial Piety Scale: Preliminary validation in a student sample. *Health Psychology Report*, 8(3), 263-272.
- King, A. Y., & Bond, M. H. (1985). The Confucian paradigm of man: A sociological view. In W. S. Tseng & D. Y. H. Wu, (Eds.), *Chinese Culture and Mental Health* (pp. 2-45). Orlando, FL: Academic Press.
- Leung, A. N., Wong, S. S., Wong, I. W., & McBride-Chang, C. (2010). Filial piety and psychosocial adjustment in Hong Kong Chinese early adolescents. *Th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30(5), 651-667.
- Lim, A. J., Lau, C. Y. H., & Cheng, C. Y. (2022). Applying the Dual Filial Piety Model in the United States: A comparison of filial piety between Asian Americans and Caucasian Americans. *Frontiers in Psychology*, 12, e786609.
- Liu, J., Wu, B., & Dong, X. (2020). Psychological well-being of Chinese immigrant adult-child caregivers: How do filial expectation, self-rated filial performance, and filial discrepancy matter? *Aging & Mental Health*, 24(3), 489-496.
- Lum, T. Y., Yan, E. C., Ho, A. H., Shum, M. H., Wong, G. H., Lau, M. M., & Wang, J. (2016). Measuring filial piety in the 21st century: Development, factor structure, and reliability of the 10-item contemporary filial piety scale. *Journal of Applied Gerontology*, 35(11), 1235-1247.
- Luo, B. Z., & Zhan, H. Y. (2012). Filial piety and functional support: understanding intergenerational solidarity among families with migrated children in rural China. *Ageing International*, 37, 69-92.
- Merriam, S. B. (1998) *Qualitative research and case study applications in education. Revised and*

- expanded from" case study research in education.*
Jossey-Bass Publishers.
- Ngoc, L. Q. (2025). Nguyễn Đình Chiểu's view of life: From Confucian culture to universal values. *UAI Journal of Art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1), 41-45.
- Pan, Y., Chen, R., & Yang, D. (2022). The relationship between filial piety and caregiver burden among adult children: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Geriatric Nursing*, 43, 113-123.
- Pine, J., & Steffen, A. M. (2019). Intergenerational ambivalence and dyadic strain: Understanding stress in family care partners of older adults. *Clinical Gerontologist*, 42(1), 90-100.
- Shi, J., & Wang, F. (2019). Three-dimensional Filial Piety Scal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filial piety among Chinese working adults. *Frontiers in Psychology*, 10, e2040.
- Sun, P., Fan, X., Sun, Y., Jiang, H., & Wang, L. (2019). Relations between dual filial piety and life satisfaction: The mediating roles of individuating autonomy and relating autonomy. *Frontiers in Psychology*, 10, e2549.
- Wang, F. Y., Zheng, H. (2015). *Chinese Cultural Psychology* (5th Ed). Guangzhou: Jinan University Press.
- Xu, J. (2012). Filial piety and intergenerational communication in China: A nationwide study. *The Journal of International Communication*, 18(1), 33-48.
- Yang, K. S., Yeh, K. H., & Huang, L. L. (1989). Social-psychological aspects of Chinese filial piety: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Bulletin of the Institute of Ethanol Academic Sinica*, 65, 171-227.
- Yeh, K.-H., & Bedford, O. (2003). A test of the Dual Filial Piety model. *Asi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6(3), 215-228.
- Yeh, K.-H., Yi, C.-C., Tsao, W.-C., & Wan, P.-S. (2013). Filial piety in contemporary Chinese societies: A comparative study of Taiwan, Hong Kong, and China. *International Sociology*, 28(3), 277-296.
- Zhang, X., Clarke, C. L., & Rhynas, S. J. (2019). What is the meaning of filial piety for people with dementia and their family caregivers in China under the current social transitions? An interpretative phenomenological analysis. *Dementia*, 18(7-8), 2620 - 2634.
- Zheng, X., & Li, H. (2022). How Chinese children's filial piety beliefs affect their parents' life satisfaction and loneliness. *PsyCh journal*, 11(6), 863-872.
- Zhou, J., Guo, Q., & Xu, R. (2020). Reciprocal filial piety facilitates academic success via autonomy: Generalizing findings in Chinese society to a global context. *Frontiers in Psychology*, 11, e69.
- 논문 투고일 : 2025. 05. 13
1 차 심사일 : 2025. 06. 16
게재 확정일 : 2025. 08. 04

The Qualitative Exploration of Filial Piety among Contemporary Koreans

Kyung-Hyun Suh Ji Sue Lee Bo-Ram Lee

Sahmyook University

This qualitative study explored how contemporary Korean adult children perceive, practice, and psychologically experience filial piety.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ten adults aged from their 20s to 60s, yielding 370 raw meaning units. After excluding overlapping or structurally irrelevant items, 87 concepts were identified and categorized into 23 sub-themes and six overarching themes: "Affection Grown in Inter-generational Love," "Filial Duty as a Moral Obligation," "Filial Practices Supporting Well-being and Stability," "Ambivalence Toward Filial Piety," "Regret for Unfulfilled Filial Acts," and "New Filial Piety Coexisting with Tradition and Modernity." Findings reveal that while traditional filial values remain cognitively salient, their practical application has shifted toward more flexible and emotionally attuned forms. Participants reported complex emotional responses-such as guilt, ambivalence, and pride-shaped by generational transitions and social realities. This study provides a foundational psychological framework of filial piety in modern Korea and serves as a basis for developing quantitative instruments to measure contemporary filial attitudes and behaviors.

Key words : filial piety, adult children, qualitative study, Korean society, emotional response